

## 헤-겔 辨證法과 맑스 辨證法과의 關係 (六)

헤-겔과 唯物辨證法- (續)

쎬-쎬링

金亨後

모든 이러한 것은 意識內容의 여러 가지의 形式이나 이 意識內容은 感情이 되며 또는 直觀되며 表象되며 欲求되는 것 가튼 것이 —그렇치만 思想을 混入하여서 或은 混入하지 안코 되는 것 가튼 것이 依然히 同一하다. 此等 形式이 各各에 잇서는 或은 若干의 形式의 結合에 잇서 內容은 意識의 對象을 構成한다. 그것다고 하면 이런 境遇에는 이러한 諸形式의 特異한 諸規定性은 內容에 潛入하여야있다. 그럼으로 이러한 諸形式의 各各은 表現的으로는 새로운 對象에 實存在를 附與하며 또 즉 自的으로 同一한 것이 內容的으로 差別이 잇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리하여 헤-겔의 出發點은 어대서부터 온 것인지 아지 못할 意識이다. 意識의 內容은 知識의 對象을 構成한다. 人間의 意識의 內容은 우리의 外에 存在한 世界에 依하여 產出되는 것이 안니라 思惟에 依하여 產出되는 것이다. 思惟에 依하여 產出되는 意識內容은 먼저 처음에는 感情, 直觀, 表象의 形態를 가지고 나타나며 最後에는 概念 卽 純粹思想의 形態를 가지고 나타난다. 그럼으로서 感情, 直觀 及 表象은 思惟의 形態 或은 現像에 不過한 것이다. 感情, 直觀 及 表象을 通하여서 思惟는 自己 自身에 純粹思想, 概念에 到達한다. 헤-겔은 말하되 『表象(즉 感情, 直觀, 欲求)은 一般으로 思想 及 概念의 譬喩로서 觀察되어진다.』라고, 表象의 基礎에는 思想과 概念이 積在하여야 있다. 거기에서 正當은 하나 概念 及 思想에는 思惟의 現像, 產物 或은 產出인 感情과 直觀과 表象이 適應하는 것이다.

『헤-겔』에 잇서서는 抽象的 思惟와 感性的 現實性 間의 對立은 極히 明白하게 나타나 있다. 우리의 意識內容은 感情, 表象, 直觀으로서의 思惟에 依하여 規定된다. 이것은 感性的 意識이 『맑스』가 말한 바와 가티 抽象的, 感性的 意識으로서 現出하는 것을 意味한다. 『헤-겔』은 決코 現實的 感性 或은

感性的 現實性 즉 實在的 物質界에는 到達치 못하였다. 그는 主觀과 客觀思想의 對立의 同一性의 見地에 있다. 이 同一性의 見地는 일은마 絶對的 知識에 引導해 드리였다. 人間 或은 主觀은 『혜-겔』에 잇서는 □□□□이며 或은 自己意識이다. 이 抽象的인 物 或은 思想 畧을 構成한다. 『精神의 現象學』의 全卷에서 보히는 對象과 意識 間의 鬪爭은 抽象的 意識과 이 抽象的 意識 自身の 抽象的 產出物의 間의 鬪爭이다. 抽象的 思惟는 感情, 直觀, 知覺, 表象 等으로서 自己를 □定하며 最高의 階段에 잇서는 思想概念으로서 自己를 □定한다. 이리하여 抽象的 思惟는 모든 混入物로부터 淨化되며 그리고 思想 그것이 思想의 眞의 對象인 것을 定立한다. 그러나 論理學 中에는 임의 純粹思想의 運動이 잇스며 理念과 範疇와 概念의 自己運動이 잇는 것이다. 全혀 當然한 일이나 우리는 『혜-겔』 一般認識論 上의 定立에 同意할 수는 업다. 또 이 定立은 根本에 잇서 틀린 것이며 現實의 辨證法的 理解에도 矛盾되는 것이다. 밧서 압해서 強調하여 둔 것과 가티 思惟는 自己의 對立物로서 存在 自然을 가지고 있다. 人間은 自然의 產物이며 人間에 잇서 自然은 自己自信의 認識에 到達한다. 自然은 自己胎內로부터 思惟를 產出하여 그 思惟가 自然을 認識한다. 存在나 思惟는 決코 相互로 隱蔽되는 것이 아니다. 즉 同一하지 안흔 對立性을 가지고 있다. 그것치만 兩者는 統一을 일우고 있다. 對象과 思惟의 間에는 感性이 서있다. 感性-直觀이 업시는 思惟는 업스나 對象이 업시는 感性도 直觀도 表象도 업다. 가장 極□의 觀念論者일지라도 感情과 表象과의 둘을 無視할 수 업는 것과 가티 實際로는 自然 또는 對象을 完全히 無視할 수 업는 일이다. 이 까닭에 가장 □□의 觀念論者라도 여러 가지 種類의 幻想的 構成에 訴하지 안흐면 안되게 된다.